

# 한화, 상생펀드 200억 추가 510억 규모 협력사 금융지원



신한은행과 추가 상생펀드 협약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원 제고  
우수 협력사에 복리후생 등 제공

한화가 상생펀드 운영 규모를 확대하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한화는 15일 신한은행과 추가로 상생펀드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우리는 행, 산업은행에 이은 행보다.

이번 펀드 조성액은 총 200억원으

로, 협력사 지원금리는 1.14%다. 신한은행 부수거래 실적 등을 통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한화는 이번 협약으로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1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하게 됐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상생펀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경영자금 확보 및 자금 유동성 개선에 더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양한 상생제도를 통해 협력사들이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도 제고한다.

우선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완화된 대금지급조건을 유지할 계획이다. 대금 마감횟수 월 3회

로 확대, 대금 지급기일 10일로 단축, 전액 현금 지급, 명절 전 대금지급 등을 포함한다.

또 동반성장 우수 협력사에 대해서는 복리후생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화는 올 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157개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체결을 완료한 바 있다. 협약은 2018년부터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세부 방안에 대해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로, 공정거래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세계 1위

올해 6.6기가와트 배터리 공급  
아우디 등 판매 호조... 점유율 견인



LG화학의 연구개발 전경. /뉴시스

LG화학이 올해 전세계 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 탑재 배터리부문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5위와 7위를 기록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16일 시장분석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LG화학은 올해 전세계 전기차 시장에 6.6기가와트(GWh)의 배터리를 공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기가와트에 비해 91% 급증해, 4위에서 1위로 뛰어 올랐다.

삼성SDI 역시 올해 1.5기가와트를 공급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해 6위에서 5위로 올랐다. SK이노베이션은 1.1기가와트를 기록해 9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이는 올해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7% 감소한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욱 주목된다.

실제로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 시장 모두 침체된 가운데 2위를 기록한 파나소닉은 전체 테슬라 모델에

대한 공급 물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배터리 사용량도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했다. 그러나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은 모두 두 자릿수를 넘어서는 사용량을 기록하며 점유율을 높였다.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2%에서 올해 35.3%로 두 배 이상 늘었다.

SNE리서치는 "3사의 성장세는 각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의 판매 증가에 기인한다. LG화학은 르노 조에, 테슬라 모델3(중국산), 아우디 E-트론 EV 등의 판매 호조가 급증세를 이끌었다"며 "삼성 SDI는 폭스바겐 e-골프·BMW 330e·파사트 GTE, SK이노베이션은 현대 포터2 일렉트릭·기아 봉고 1 TEV·소울부스터 등의 판매 호조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5G 단독통화"... LGU+, Vo5G 시연 성공

(5G데이터망 기반의 통화)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시간 장점  
5G 단독모드 단말 출시 대비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5G 단독모드(SA) 기반의 음성통화 서비스 방식인 EPSFB(이볼브드 패킷 시스템 풀백) 외에 Vo5G(5G데이터망 기반의 통화) 기술을 상용망에서 시연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연 성공은 5G 단독모드 기반의 데이터 송수신 테스트를 성공한 데 이어 5G 단독모드 기반 단말의 출시에 대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5G 네트워크는 LTE의 코어망 일부를 함께 사용하는 5G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다. 이로 인해 5G 스마트폰에서 음성통화는 LTE망을 이용하고 있다.

향후 상용화될 5G 단독모드에서는 5G와 LTE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모델들이 5G 스마트폰을 통해 음성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따라서 음성통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LTE 네트워크로 전환한 뒤 통화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5G 네트워크에서 바로 통화가 가능한 Vo5G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EPS FB방식은 기존 LTE망을 활용한 안정적인 음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점이지만, Vo5G 대비 통화연결시간이 길어지는 등 품질 저하 현상이 있을 수 있다. Vo5G에서는 안정적인 5G 네트워크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고 연결 시간도 빨라

지는 장점이 있지만, LTE와 5G 경계지역에서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EPS FB와 Vo5G를 상용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품질 테스트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해 5G 단독모드 상용화 시 고품질의 안정적인 음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2년 LG유플러스는 LTE 네트워크에서 고품질의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VoLTE를 상용화한 바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LS전선, 하이엔드 오디오케이블 출시

고순도 구리 사용 잡음 최소화

LS전선이 고순도 구리를 사용해 잡음을 최소화한 케이블로 마니아층 공략에 나선다.

LS전선은 16일 하이엔드 오디오 케이블인 '프라이어리티'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0년대 초반 LG전선 브랜드로 생산했던 OFC(무산소동) 케이블을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선보인 것이다. 이는 국내 시판 중인 OFC 오디오 케이블 중 유일한 국산 제품이다.

프라이어리티 시리즈는 케이블 도체에 99.99% 이상의 고순도 구리를 사용해 음의 전도율을 높이고 잡음을 최소화했다. 구리 속 미미한 양의 산소와 불순물도 왜곡과 노이즈를 만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99.99% 이상으로 정제하는



LS전선의 오디오 스피커 케이블. /LS전선

것을 기술력의 척도로 보기도 한다.

LS전선은 구리 가공 기술을 활용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수입산 대비 10~20% 정도 낮게 책정했다. 특히 이 제품들이 방송국과 극장, 음향 전문 스튜디오, 오디오 마니아 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지 기자

# 현대차, 정부부처와 軍 수소버스 도입·충전소 구축 협력

수소전기차 보급, 군 영역으로 확대

현대자동차가 수소에너지를 국방력에도 도입한다. 현대차는 16일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서 국방부 수소버스 도입 및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MOU를 통해 국방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과 함께 국군 내 수소전기차 도입 및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상호 협력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수소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수소전



'제2회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에 전시된 현대차의 수소 전용 대형 트럭 콘셉트 '넵톤(Neptune)'.

기차 보급 확대뿐 아니라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등 수소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을 이어가는 내용이다.

특히 수소전기차 보급을 군 영역에까지 확대시켜 수소산업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협약 당사자들은 국방부의 수소 활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가 ▲자운대 인근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설치에 협력하고 ▲오는 2021년까지 수소전기차 10대를 구매하여 시범 운영하며 ▲추후 지속적인 수소전기차 구매·운영 확대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수소드론의 군 사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군 장비 및 시설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 적용 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지원한다. /김재용 기자

# 벤츠, 아이들과 미래 재단에 18억 기부

국내 취약계층·의료진 지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8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벤츠사회공헌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취약계층 및 의료진을 지원하고자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에 총 18억원을 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벤츠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판매된 차량 1대당 10만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했으며, 그동안 1만8000여대를 판매하면서 총 18억원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벤츠는 지난 2월 10억원을 선제

적으로 지원금으로 내렸으며, 추가로 마련한 8억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국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가정과 의료진뿐 아니라 노년층, 소상공인, 의료기관 등 여러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벤츠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4월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가정, 의료진에게 위생용품, 면역력 강화를 위한 제품, 간편식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물품 키트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지역 농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북 지역 특산 농산물 가공식품을 함께 전달했다.

/김재용 기자